

“빛고을 불교 발전에 사부대중 힘 모은다”

광주불교연합회, 광주불교 미래 비전 선포 및 계획 발표

광주불교연합회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중심사 주지)는 12월 5일 광주시 공무원불자회, 11일 광주지역 불교단체, 12일 광주시장·시의장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연합회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승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지역사회에 불교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사업 △광주불교의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 등을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장기계획으로 '광주불교회관'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광주불교회관 불사는 현재 상무지구 무각사 안에 위치한 불교회관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도심으로 이전해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불교연합회는 단계계획으로 △연합회 운영체계 확립 △연합회 상근 인력

등 실무진 확대 △지역 불교계 및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회복 등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첫 행사로 12월 27일 연탄 1만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1월 7일에는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기념법회도 연다.

12월 27일 연탄 1만장 나누기 행사

내년 1월 7일 대규모 성도재일법회

광주 특색 반영된 봉축행사 준비

장기적으로 '광주불교회관' 건립

회장 연광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관련해 기존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행사를 연합회 차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광주지역 특색을 반영한 봉축행사를 위해 12월 중 봉축 기획단을 발족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2일 열린 광주시 간담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사진 첫열 가운데)과 광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이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며 웃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 18명을 공개했다. 연광 스님은 “이전에 몇 명의 임원스님들에게 치우쳤던 의사결정과정을 개편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합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위원회 실무진을 통해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운영 위 추진 후 행사가 진행되도록 체계를 변화시켰다.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위원 또한 광주지역 젊은 활동가 스님들을 위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에 광주지역 불교단체들도 환영의 뜻과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 광주지역 대표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의 김영섭 사무처장은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연합회가 리더십과 포용성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반갑다”며 “향후 광주불교계를 대표해 지역사회에서 불교계가 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사랑의 김치 나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12월 12일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고창 강호 항공고등학교와 어르신 자원봉사자 60여명이 2,5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복지관 경로식당과 저소득층 62가정에 각각 전달했다.

도완 시설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전달된 김치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배추와 배추절임을 고창 흥덕농협과 (주)풍성식품에서 후원하여 지역사회에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계사년 동안거 포살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3일 전북 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불기2557년 계사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총회를 개최했다.

폭설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끝에 전북 불교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된 동안거 포살법회에서 동참대중들은 <범망경 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조계종 제17교구 총회에서는 불기2558년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의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불자 800명 모여 '불교인의 밤' 성료



12월 8일 열린 익산 '불교인의 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800여 대중이 모여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했다.

익산지역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사년 한해 실행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익산불교의 도약을 다짐하는 '익산 불교인의 밤' 행사가 12월 8일 익산 연리지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덕립 스님, 승림사 지광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택희 익산신도회장, 김진수 前전북포교사단장 등 신행단체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전정희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을 비롯한 대중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품평제의 식전공연에 이어 승넛법회, 케이프 점축 및 커피, 사찰 신행단체간 여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한 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

사 분야 등에서 활동한 지역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새해에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되고 윤리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화쟁논리를 바탕으로 여야간, 계층간, 지역간 나눔과 배려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쟁논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노고가 큰 익산마한 거사님과 대원회에 격려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익산사암연합회장 덕립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양보하는 정신이 절실하다”며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2013나눔의 날'



광주지역 생명나눔활동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나눔의 집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나눔'을 주제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잔치 한마당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치,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12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2013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나눔의 집 봉사자와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를 맡고 있는 '나눔의 집' 회원들이 1년간 모금을 한 금액과 현황증을 생명나눔에 전달했다. 또 헌신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 '미스'수지를 비롯해 홍보가수 양주호, 배훈 아 이사랑 안경원 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이영민, 남경미, 신재호 학생에게 자원봉사자상이 수여됐다.

현치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회원님

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등스럽게 명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사는 현치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지각 스님(동원사), 일명 스님(금산사)을 비롯해 200여명의 회원과 봉사자, 25개의 나눔의 집에서 동참했다.

생명나눔은 2013년 1년 동안 캠페인 활동을 통해 조혈세포 124명, 장기기증 116명의 희망등록 활동을 펼쳤으며, 전체 708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지난 11월 27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생명나눔 치료기금과 현혈증 1000매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우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부안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 내소사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는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는 전

통 한식 목조 기와집 형태의 구조로 육송이 사용됐고, 지붕은 한식 기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 게 특징이다. 또 외벽에는 내소사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효사, 저소득계층을 위한 나눔행사

추운 겨울에 힘든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온정이 전달됐다.

광주 원효사(주지 현치)는 12월 8일 경내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를 갖고 광주 동구와 북구지역 저소득 계층 100가구에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매년 저소득층에게 자비의 온정을 전달하고 있는 원효사는 이날 100가구에 김치 70kg과 연탄 4000장, 쌀 30포대, 이불 10채 등을 전달했다.

행사는 원효사 신도회, 청년회 회원

을 비롯해 송광운 북구청장과 직원,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은희 원효사 신도회 회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과 나눔행사를 갖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겨울이 춥다고 해 음식과 난방 등을 같이 지원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날 전달된 나눔용품은 북구청과 자비신행회를 통해 각 지역별 차상위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탄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였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꿇게 되면 염장은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되었으면 모주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를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